

HOME



BORN NEW IN PARIS

파리의 물가와 집세도 보통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지엔으로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나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취향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집으로 개조하는 일이 우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리노베이션을 마친 세 사람의 아파트. writer 고윤경



2. 작렬하게 사용해 단조로움을 해소한 거실 공간. 플로어 램프, 팬던트 조명, 벽걸이. 2 작업 책상을 놓고도 모퉁이에 소형 영화관을 따로 꾸며놓았다. 3. 벽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물로어 램프와 2인 소파는 헤비타트(Habitat), 티크, 1인용 의자와 러그는 이케아 제품이다. 3 왼쪽 천장으로 긴 장을 내어 2. 한시한 작은 조명들을 설치해 독특한 빛을 선사하고 있다. 3. 그안된 부엌, 심플한 디자인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모두 배치했다.



엘로디의 아파트 몽마르트르의 숨은 아틀리에

물가와 집세가 하늘을 찌러도 파리지역으로 남고 싶은 이들이 선택하는 지역은 바로 몽마르트르를 나란히 한 18구다. 중저가 의류 백화점인 타티(TATI)의 철 지난 핑크 드레스가 여전히 유행하고 커플의 한 달 월급으로 결혼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소박한 곳이지만, 이 구역의 활기만큼은 상젤리제 부럽지 않다. 가구를 취급하는 사이트 램-부티크(lab-boutique.com)를 운영하는 엘로디 라레우스(Elodie Laléous)가 정착한 곳도 바로 18구다. 패션 브랜드 클로에에서 2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모두를 직접 디자인해 제작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아틀리에 겸 아파트를 찾던 그녀는 물색 끝에 작은 목공소와 인연이 닿았다. 지하 창고 딸린 좁고 긴 아틀리에를 아파트로 만드는 데엔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공사비가 집값만큼이나 들었다는 얘기가. 10분만 걸으면 몽마르트르에 닿는 호사를 얻은 대신 그녀가 포기한 부분은 시야였다. 시청에 용도 변경 허가를 얻었지만 건물 1m 앞에 차가 지나가는 터라, 외벽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결국 불투명 특수 고정 유리로 파사드 전면 공사를 마쳤다. 이 때문에 채광도 문제였다. 목공소의 지하 창고 출입을 위해 유일하게 내놓았던 바닥 구멍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조금이라도 빛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지하 창고를 침실로 결정한 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다. 파사드에 접한 내부에 정식 계단을 내야 했지만 엘로디는 빛이 아예 단절될 뻔한 침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잘 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세면대를 붙인 계단 벽 위에도 파사드에 이용한 방법을 적용시켰다. 덕분에 여름에는 꽤 밝다. 누웠을 때 보이는 천장의 주방 바닥 유리나 침대 맞은편의 하늘색 사각형 모두 빛의 확보를 노린 것이다. 잠자는 공간엔 불필요한 빛이지만, 빛에 목마른 그녀의 역할상이 재치가 있다. 거실과 주방을 더 넓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엘로디는 처음부터 주방 가구를 붙박이 일자형으로 착안했다. 모든 가전제품에 빌트인 방식을 적용한 것도 주방을 하나의 벽으로 삼으려는 의도다. 무엇보다 사업의 핵심이 되는 공간 아틀리에의 핵심은 아파트의 출입구인 현관과 T자 형태를 이루는 긴 공간에 배치했다. 모퉁이의 2인용 미니 영화관까지, 잃기 쉬운 복도 공간을 꼭 차게 이용한 예가 아닐 수 없다.